

# 군산항, 삼계탕도 중국 수출

### (주)하림·(주)참프레 등 20톤 첫 선적... 농식품 대중수출 전진기지 부상

약 100년전 일제의 쌀 수출이라는 '서러운 역사'가 있는 군산항이 올해 1월 대 중국 '쌀 수출'이 시작됐기에 이어 전북 '삼계탕'의 대 중국 수출이 시작돼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특히 이번 군산항 삼계탕 수출은 중국 최대 유통그룹인 푸닝과의 계약이 포함돼 향후 삼계탕의 한류열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에서 대 중국 삼계탕 20톤의 첫 수출이 시작돼 수출 기념식이 개최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10여년 전 중국측에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을 처음 요청(2006년 12월)했으나 외교부·위생부 등의 문제로 진전이 더뎠었다. 이후 지난 해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검역검사 기준이 마련된 후 급속히 진행돼 지난 4월 국내의 닭류가

공공장 5개소와 도축장 6개소가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이번에 수출공장으로 선택된 11개 업체 중 전북지역 기업으로는 (주)하림과 (주)참프레가 포함됐다.

(주)하림은 닭류 가공식품에 있어 전북도는 물론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업체이고 (주)참프레 역시 국내 최초 동물복지인증 받은 업체로 1°C의 신선도 관리 시스템으로 장기보존이 가능하고 다양한 조리방법 등이 제공돼 바이어들로부터 꾸준한 러브콜을 받는 기업이다.

특히 (주)하림과 (주)참프레는 종계부터 가공제품 생산까지 전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가공 기반을 갖추고 있어 수출 확대가 크게 기대되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도의 닭 사육두수는 전국의 15%(약 6,400만 마리 중 2,590만 마리, 2015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고 닭 사육 농가도 16.7%(3,000호 중 500호)를 차지해 삼계탕 수출이 확대될수록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중심지로 부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늘 수출되는 '삼계탕'이 13억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국 시장진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난 1월 대중국 '쌀' 첫 수출에 이어 '삼계탕' 첫 수출까지 군산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군산항'이 대 중국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량을 확대해 나가는데 도가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소비재 수출상담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함께하는 '2016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참가업체 관계자가 해외 바이어와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있다.

## 새만금사업단-한국전력공사 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8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락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새만금방조제 신시33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지역의 전기 전력공급과 유지보수 전력설비 시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추후 실무협의회 구성 등 동북아 경제중심지 기반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대 사업단장은 "첨단농산업

부지조성과 대규모 농업회사 부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한국전력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강화하고 녹색 친화적 사업이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락현 본부장은 "새만금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은 신(新)기후 체제 출범과 더불어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고 국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사업단과 함께 민간 신재생 공영비즈니스로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제=곽태기자>

## 무주 '부영 임대 아파트' 180세대 공급

부영그룹은 최근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427-1번지에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180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무주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읍내리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 2개동으로, 전용면적 73㎡ 30세대, 84㎡ 150세대 등 총 18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가격은 73㎡가 임대보증금 8,000만원에 월임대료 19만5천원, 84㎡는 임대보증금 9,400만원에 월 임대료 22만5천원 선이다. 전세가 격은 73㎡ 1억 2,700만원, 84㎡ 1억 4,800만원에 각각 공급된다.

청약은 7월 4일에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대상자

고 있는 부영그룹에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를 공급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다.

또한 선시공 후분양으로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구천동 계곡, 태권도원 등 주요 관광지와 반딧불 축제로 유명한 청정지역 무주군에 건설되는 무주읍내리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는 초·중·고교 등 교육 시설이 인접해 있고 무주군청 무주교육지원청, 전주지방법원 무주군 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 등 공공기관들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무주IC를 통해 대진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국도 등을 통해 전국 주요도시로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다. <무주=전문기자>

특별공급 신청이 진행되며, 5월 일 반공급 1순위, 6월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접수(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ap2you.com)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2일 예정이며, 당첨자 계약은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부영 무주 분양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16년 8월이다.

최근 무주군에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운영하

###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현행법상 문제 없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현황보고회에서 자본확충펀드가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장과 추가 협의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증재원은 자금 출연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차원이고, 지난 2009년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때도 이 방식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수 기자>

## 은행 수신금리 1.54% '역대 최저'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달 시중은행의 수신금리가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은행채 금리와 CD금리 등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반영된 영향으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54%를 기록했다. 이는 1996년 금리통제 편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순수 저축성예금 금리는 1.53%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감소, 지난해 9월(1.51%)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9월(1.51%)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1.53%를 기록했다. 정기적금 금리도 1.78%로 한달 만에 내림세로

전환,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금 융상품 역시 1.80%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대출 관련 금리도 줄줄이 낮아졌다.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5%로 전월 대비 0.01% 포인트 상승했지만 영역별로 보면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대출금리에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그리고 공공 및 기타 부문 대출 금리가 반영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0.04%포인트 하락한 2.89%로, 지난해 4월(2.81)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단대출 금리도 2.9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인진수기자>

## 제2금융권·집단대출 모니터링 강화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과 집단대출의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9일 열린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회에서 "제2금융권 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 부담이 되려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이 집단대출 규제는 빠져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신규주택 중도금 대출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 없이 보증을 서주는 현행 제도를 1인당 2건, 6억원(지방은 3억원)까지만 보증하는 식으로 중도금 대출을 손질했다. 보증 대상으로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집단대출과 2금융권의 취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상호 금융권의 가계부채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진용섭 원장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가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권에 예정대로 7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며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한편, 집단대출 취급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진수기자>

## 식품업종 하도급 미지급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식품 업종 대상 하도급 미지급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9일 서면 실태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식품 업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식품 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체결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 행위를 위주로 조사하며 필요시 단가 인하·부당 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진수기자>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